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605 발 의 년 월 일: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:김길영 의원(1명) 찬 성 자:강석주 김규남 김영

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성연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이종환, 이희원, 임규호, 채수지, 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35 명)

1. 제안이유

- 경제침체, 온라인 기반 소비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로 상가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해 적정 상가 공급을 유도하고자 함.
- 제2종·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,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소규모 건축물 공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통한 개발 여건을 한시적으로 향상시켜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 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(안 별표 16)
- 나.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범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(안 제51조제2항제9호 및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소규모주택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,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 - 가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 - 나.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, 소규 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

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) 제51조제2항제9호 규정은 2028년 5월 18일까지 건축허가(건축신 고 포함)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 용한다.

[별표 16]

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

(별표 8 제1호가목, 별표 9 제1호나목, 별표 10 제1호가목, 제50조제1호 관련)

- 1.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(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)은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(의무 비율) 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(의무 비율)에서 「주택법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.
- 2.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

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(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)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.
- 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2조제1호가목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(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)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및 서울도심을 제외한 일반상업지역은 600퍼센트 이하, 서울도심 내의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.
- 다.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,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.
 - 1)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(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)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, 시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
 - 2)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,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, 시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
- 라.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·시도시재정 비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(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)을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주거용 용적률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 - 1) 도시 ·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
 - 2)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
 - 3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
 - 4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 - 5)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용적률의 완화)	제51조(용적률의 완화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	2
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	
라 정할 수 있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 신 설 ></u>	9.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
	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
	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
	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
	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
	있으며,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
	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	가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
	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
	<u>건축신고</u>
	나.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제1
	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
	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 및
	<u>소규모재개발사업</u>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8조 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건축법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의한 개별사업을 추진할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 할 수 있도록 조례 제51조(용적률의 완화)제2항에 제9호를 신설한 것 등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진형

® 02-2180-7954

e-mail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